第299回國會 (臨時會) 南北關係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5日(火)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審査된案件

1. 현안보고 ····· 2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들녘에서 봄소식이 지천입니다마는 경색된 남북관계는 쉽게 훈풍이 불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 6자회담,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 천재지변에 대한 공동 대처, 남북대화 등 산적한 과제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색국면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소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님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독일 통일비용, 통일정책 등에 대해서 독일 관련 전문가 등과 포럼도 열고 대화도 함께 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교류와 이를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상생발전의 정책으로 지속적인 화해·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고 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제시됨으로써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교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위도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논의된 대로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강산 및 개성공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14시07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차례로 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대신 박석환 제1차관의 대리출석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1일 남북관계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이후 북한의 동향과 최근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최근의 북한 동향입니다.

먼저 내부 동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4월 5일 현재 총 35회 공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동기 43회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소집이 공시되었습니다. 4월 7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각의 '10년 성과·,'11년 과업, 그리고 '10년 결산 및 '11년 예산 등 기본의제 이외에 주요기관 인사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년 강성대국 진입 관련, 선군을 앞세운 단체·직능별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여 체제 단속과 동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세계 식량위기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하면서 해결책으로 자급자족, 자력갱생, 식량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남 동향입니다.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천안함·연평도 관련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 종료 이후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3월 30일), 백두산 남북공동연구를 제의(3월 17일)하는 등 다시 유화적 공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외 동향이 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6자회담에서의 UEP 문제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으며, 6자회담 재개 시 핵실험·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 등 중동 민주화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대남 선전방송인 평양방송에서는 중동 민주화 사태를 색깔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체제의 공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리비아의 핵 포기는 관계개선 사탕발림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핵 억제력 보유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및 적십자 위로금을 전달하고 피해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여 왔습니다.

다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대북지원은 잠정 보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투명성 강화 조건하에 민간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4월 4일 현재 내성결핵약·빵·두유가루 등 총 4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지원 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분배 투명성 등과 함께 전반적인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입니다.

지난 3월 17일 북한 측은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협의를 제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남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선 전문가협의를 3월 29일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3월 24일 북한 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회의가 3월 29일 문산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측은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공동연구에 앞서 사전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교환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교환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 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문가 간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지에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쌍방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으며, 북한 측은 4월 초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차기 회의 관련해서 백두산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회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차원에서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 관계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환 외교통상부제1차관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핵문제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북한은 최근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국제회의 석상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우라늄 농축시설(UEP)이 평화적 핵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등 아직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일·중, 한·중, 한·러 협의 등을 통해 북한 우라늄 농축에 대한 대응, 6자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 등 북핵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협의결과는 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대화 등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을 통해 회담 재개의 올바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9·19 공동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월 14일과 15일 파리에서 개최된 G8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였습니다. 북한이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요약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시 중국 측에 처음으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환기하고 6자회담 관련국들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식량문제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WFP/FAO/UNICEF 등 국제기구의 합동평가

팀이 2월 21일부터 3월 11일 간 방북하여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WFP는 3월 25일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주요 공여국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동계 한파로 인한 하곡 추수 감소가 예상되고, 국제식량가격 상승으로 식량 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북한의 식량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북한 취약계층 610만 명을 대상으로 약 43만t의 곡물과 영양식품을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서 우선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되는 식량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는 모니터링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최근 국제기구 합동조사단의 북한 식량 평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작년 11월 WFP 보고서 및 여타 관련 정보 등과 함께 북한 식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WFP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국·EU 등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북한문제 관련 동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석환 외교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 소관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국방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군사동향 및 대비태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리졸브 및 FE 연습과 관련해서 작년도보다 증가된 수준의 북한의 비난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60여 회의 비난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약 70여 회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전·후방 각급 부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피격 1주기 즈음해서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대화할 것이냐, 전쟁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라는 위협을 가한 바 있습니다.

동계훈련은 식량·유류 부족 등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 훈련 종료를 앞두고 훈련성과에 대한 판정검열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북해역 활동입니다.

북한군은 상급 지휘관 현장 방문 및 작전태세 유지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북 경비정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북한 어선은 일일 200척 내외, 중국 어선은 현지에서 약 500척 내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침투 및 국지도발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동·서해 침투세력의 해상침투훈련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주로 우리 민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전 본거지를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 하는 등등 심리전 중단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기습적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 군의 대비 태세입니다.

접적지역 도발 대비입니다.

먼저 연합 및 합동 정찰자산을 통합 운용하고, 북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기전력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인지하고 있을 적에는 가능성 있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방 축선별로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예하부대의 작전대비태세는 검열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북해역 도발 대비입니다.

꽃게 성어기 중 해상경비전력을 증가하고, 우리 민간어선에 대한 조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도서에서의 도발 유형별 대비계획을 발전

시켰는데, 즉 도발 시 대응전력태세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긴급 소요전력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훈련을 강화하고, 국가기간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비해서 군은 지원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및 미사일 감시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해서 핵시설과 적 미사일기지를 추적 감시하고, 핵 실험 탐지 시에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특히 연합 위기관리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 도발 억제에 중점을 두고 도발 시에는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모든 대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3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1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별도로 충분히 드리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문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문학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문학진 위원 민주당 문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남북특위 회의 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 보자, 그래서 그걸 좀 내용 있게 추진을 하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특위 차원에서 우리가 방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걸 추진을 적극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슨 진척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이 회의 시작에 앞서서 한나라당·민주당 두 간사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선 28일이나 29일 양일 중에 개성공단·금강산 관련기업, 그리고 북한 내륙기업 대표자들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는 간사 협의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성을 비롯한 현장 실사와 관련된 부분은 간사들끼리 더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들끼리 이 회의가 끝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당내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서 간사 협의를 통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개성이나 금강산을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커다란 장애가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박주선 우리 간사단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통일부장관에게 방북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는 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우선 현장 방문과 관련된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나는 것이 더 선 순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김효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김효재 위원 28일과 29일 개성공단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결정은 언제 내려진 것이지요?

○위원장 박주선 지난번 1차 회의 이후에 간사 접촉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됐다는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재 위원 제가 게을러서 못 들었는데요.

○이사철 위원 그때 얘기가 나왔고 오늘 간사회의에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 날짜는 만일에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정과 사유가 있게 되면 또 간사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김효재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기 때문에……

○신지호 위원 28일은 본회의가 있잖아요. 오전에 합니까?

○위원장 박주선 특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회의 일정과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아주 재앙 수준의 원전사고가 아직도 제대로 수습책을 명쾌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신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원자로 냉각과 관련된 설비 제공 제의를 했지만 일본이 조기에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적기 수습을 못하고 화를 더 키웠다, 이런 분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러한 장비를 미리 구비를 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 원전들에 대해서, 물론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방어태세는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내에서 이런 원전 폭파 시도와 같은 테러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 이러한 준비가 과연 부처 간에 이미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외비인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전의 안전을 관할하는 부처나 또 실제 원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하고 어느 정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지금 대비 태세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 대한민국의 4개 지역에 원전이 있습니다. 그 지역 단위로 향토 사단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관련 전술토의와 협조회의를 했습니다. 훈련은 분기 1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실시, 이것은 물론 국가 중요시설 방어 차원에서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미국과 같이 조금 냉각설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준비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면은 관련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世淵 委員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대테러 어떤 준비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사태 발생 이후에 대한 수습 준비는 현재 충분치 않은 걸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특위 회의 때는 이런 부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원자력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국방 업무라기보다는 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다른 부처 업무와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관계기관과 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난 4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된 물 1만 50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일이 없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없습니다.

○金世淵 委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로 도쿄전력에서 하지만 일 정부에서 한 걸로 보고, 또 민간인이, 우리 국민이 혹시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현장조사도 하자고 그렇게 제의할 예정입니다.

○金世淵 委員 실제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 가지고도 국제간의 공조가 얼마나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계가 하나의, 특히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권역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불안감을 지금 항상 상시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준치를 몇만 배 초과한다는 물질을 그냥 이웃 국가와 상의 없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

다.

○위원장 박주선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제가 두 번째인가요?

현인택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서도 김정일 정권은 여전히 뻔뻔하게 이것은 남조선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시인한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예를 들면 1968년 김신조 당시 무장공비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지요? 북한이 발뺌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과는 상관없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남조선의 자작극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런데 언제 인정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이후에 아마……

○신지호 위원 이후락……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후락……

○신지호 위원 비밀 방북을 했을 때 김일성이 '이거 우리 내부의 좌익 맹동분자들의 소행이었다' 하고 구두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신지호 위원 그다음에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 최대 문제가 일본인 납치사건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신지호 위원 일본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정일 정권은 이것은 반공화국모략책동이다, 일본에 대해서 계속 그러한 허위날조를 주장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2년 9월 17일이었던가요,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당일치기 방문을 했을 때 김정일이 인정을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신지호 위원 자기 아버지 김일성과 똑같은 어법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일부 좌익 맹동분자들의 소행이었다'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언제 이와 같은 고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또 그런 실토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언제 북한으로부터 그런, 말하자면 사과라든가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딱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과거에 북한이, 물론 지금 신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예로 봐서 북한이 드물기는 하지만 과거의 그런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를 했다……

○신지호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68 청와대 기습이나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경우는 자신들이 뭔가 아쉽고 답답하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술적 후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런 점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신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남북 대화를 그냥 진행한다든가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한다든가 6자회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이 천안함 만행과 연평도 만행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질문하시는 진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남북 관계가 제대로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남북 관계하고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이 여러 가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상황을 꼭 재단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남북 관계가 제대로 미래를 보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민주당의 김재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우리가 늘 북한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악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일도 드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손을 내밀어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수를 청해야 될 때 된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악수의 손을 청한다면 저희들은 더 큰 반가운 손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수의 손은 가시가 돋친 악수의 손이 아닌가 하는 거 때문에 제대로 악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따뜻한 악수의 손을 청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제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이 결국 미래를 여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다 더 대범하게, 통 크게 문을 열고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 방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종교계의 대표자들이시지요, 이분들이 방북 신청을 하겠다 이런 뜻을 펼쳤는데요. 만약에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7대 종단 대표 분들이 방북 신청하면 승인해 주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제 7대 종단의 대표들께서 나오셨고, 또 저를 초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윤 위원 유엔식량계획이 최근 북한의 식량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08만 6000t이 부족하다, 특히 취약계층 610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43만 4000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발표했는데요.

지금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식량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WFP가 지난번에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북한을 다녀와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과연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가, 또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식량 문제는 단순히, 특히 대규모 식량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문제는, 사안은 아니다. 그것은 좀더 큰 전략적 문제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이 조사는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신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이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통일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 차관님, 지금 북한의 경제가 자꾸 중국에 예속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데요. 자원 외교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자원 부국인 북한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남과 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효재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효재 위원 김관진 장관님, 지난달 31일 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가셨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국방부장관이 그런 자리에 나가신 게 꽤 오래간만인 거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도발 원점뿐만이 아니라 지원 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지원세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원세력은 타격세력이 나온 모체 부대……

○김효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김관진 뭐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 시에……

○김효재 위원 예컨대 포병대대에서 포가 날아왔다 그러면 그 포 사령부를 타격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바로 인근에 있는 부대까지 포함이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논리가 그동안에는 교전규칙에 대한 수세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대한 측면이 있다, 일선 지휘관들에게 선조치권을 부여한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훈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직접적인 건 아니고 항상 이것은 국지 도발성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키 리졸브는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훈련 개념이고 국지성 도발에 대한 것은 별도 훈련을 합니다.

○김효재 위원 별도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수시 훈련으로……

○김효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때 보니까 저희들이 연평도에서 속수무책으로 북한에게 당하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대응사격을 했는데 사병들은 용감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무력화되었던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대응이 무기력했거든요, 첫째. 두 번째는 전투기가 떴으면서도 그저 그냥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장관의 지침으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방송기자클럽에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친 것인지 아니면 장관 지휘소신 또는 각 군사령관의 지휘소신으로 이런 권한위임 또는 현장에서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이 위임되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지침이 내려갔고 지침에 의해서 축선 별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남쪽에서 올려 보내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전단을 올려 보내는 곳에 조준사격하겠다'라고 지금 공갈협박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경우에도 포를 사격한 그 주변의 지원부대까지도 저희들의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지금 남한에서는 북한의 그런 협박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에 대북 삐라를, 선전 전단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포가 날아오면 일단 두렵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막고 그래서 엉뚱하게 북한의 민주화를 바라는 남쪽의 주민들 간에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방법이 우리가 북한에게 '너희들이 보내면 우리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응징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3월 초에 전방지역의 현장에 가서 분명히 '적이 도발을 하게 되면 선조치 후 보고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과 현장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민간인이 하는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는 군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도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모든 대비책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믿겠습니다. 특히 훈련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효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선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위원 오늘 보고에서 기습적 국지 도발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신다 하셨는데 3차 핵 실험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함경북도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 실험 두 번 했습니다, 2006년, 2009년.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위원 백두산에서 몇 ㎞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100여 ㎞ 정도……

○송영선 위원 110㎞ 떨어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센다이 대지진에서 봤다시피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하고 지진이나 화산과의 관계가 불가분하다는 것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위원 그러면 최근에 연구되는 백두산 폭발, 물론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도 작년 4월 달에 이것 가지고 세미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폭발과 북한 핵시설 안전문제가 별개의 문제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별개 문제 아닙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다가 북한 원자로 모델은 언제 것입니까? 구소련 60년대 중반 모델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60~70년대.

○송영선 위원 후쿠시마 모델보다도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 화산으로 인한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백두산 화산 전문가들, 물론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정성 문제 2차 조사단에는 저는 분명히 원자로 전문가, 핵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한국에서는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북한에서는 화산 전문가만 들어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국방부에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대비 방안도.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조사내용에서 대비방안이 없습니다. 폭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얘기하다 치웠어요. 김정일이 죽고 나면, 죽느냐 안 죽느냐 그 얘기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요. 죽고 나면 대비방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 물어보면 대비방안 다 있다고 얘기해요. 없어요. 준비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정일이 지난 31일 '통 큰 대화를 하든지 진짜 전쟁을 하든지'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은 항상 그러한 극단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송영선 위원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만, 김정일이 깡패인 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지만 엄포만 놓는 사람 아닙니다. 행동을 합니다. 액션 플랜이 꼭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면 통 큰 대화라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나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정권을 보장하는 것 아니면 전쟁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간단히 안 듣고 있지요? 간단히 안 듣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위원 아까 김효재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국지전만이 아닙니다. 전쟁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부처보다도 국방부가 정말 신경을 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통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일본 후쿠시마원전을 시멘트화하자고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영선 위원 이것은 내정간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사능은 황사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강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상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편서풍이 부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농담 따먹기 합니까? 지금 아까 차관님이 대답을 뭐라 했어요? '공동연구를 생각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토론을 하고……' 지금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방사능에 노출되고 백혈병이 나타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10년간입니다. 암은요? 2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방사능을 숨을 쉬고 있어도 정부가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정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포를, 무슨 이상한 천을 뒤집어씌운다, 뭐를 판다 하는데 '너 혼자만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시멘트화 처리해라' 왜 외통부에서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 해요? 교과서 통째로 당하고 앉아서 만날 하는 얘기가 결의안이나 내자? 4700만 다 죽게 됐는데? 외교부라고 외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외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돌아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검토가 아니고 즉각적인 행동, 액션 플랜을 좀 내놓으세요, 국민이 정부를 믿고 좀 살 수 있도록.

통일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 배포 모니터링단, 우리가 직접 배포는 못 한다, 이것 만날 전략적인 것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전략적인 것하고 그만 연계시키십시오. WFP 세계식량기구에게 쌀 직접 갖다 줘라 얘기 안 할 거면 우리가 모니터링단…… WFP 단장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바뀔 때마다. 모니터링단 채용에 대한 비용이나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제기구에 대해서 말이지요?

○송영선 위원 예, 모니터링단. WFP를 통해서 쌀 주고 이런 것 다 치우고 하여튼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없어서 못 보낸다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WFP에 모니터링단 지원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용 지원하는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저희가 그 말씀은 조금……

WFP가 모니터링단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까?

○송영선 위원 모니터링단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자체의 경비로서 모니터링단을 대폭 확대하기에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직접 여기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꾸 모니터링단이 없어서 쌀 못 보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궁색하고 제가 볼 때는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鴻俊 委員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安鴻俊 委員 오늘은 청명이자 식목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풀려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측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서 식량 지원을 받고 경제난도 완화하겠다는 속셈이지만 우리도 4일 월드비전 등이 북한의 영유아를 위해 마련한 영양죽과 분유 약 1억 7600만 원 상당의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해 남북의 관계 전문가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3월 특위에서도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작지만 실현이 가능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약품과 생필품의 남북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나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총괄적인 대북지원정책 기조에 맞춰서 남북협력과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산모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B형간염 백신, 결핵을 비롯해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 생필품과 같은 지원과 함께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의 자체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맥주병에 고무호스를 끼워서 링거를 만든다는 것이 북한의 병

원입니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밖에 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인력의 전문기술 지원 등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속한 7개 종단 대표들이 평양 방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윤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신 문제입니다마는 어제 제가 종단의 대표 되시는 종교 수장들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鴻俊 委員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대북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와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입장은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좀더 진전시키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좀더 발전이 되도록 하는, 남북협력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잘 공생,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가겠다 그런 원칙 하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安鴻俊 委員 4월 한반도에는 대형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15일에는 99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고 26일~28일까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두 남북관계를 위해 중요한 행사들입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한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확보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화도와 황금평의 개발권을 따내는 등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중국의 자치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장기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 북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의 어떤 남북관계를 보는 전략적 틀에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安鴻俊 委員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3차 회의입니다. 특위가 아마 6개월짜리지요?

○위원장 박주선 예.

○安鴻俊 委員 물론 다시 또 연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차 회의가 3월 11일이고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있게 하려면 뭔가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아마 첫 1차 모임에서 실질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소위를 구성해서 한번 일을 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도 아직 소위 구성도 확정되지 않고 또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면 간사끼리 협의는 특위 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6개월 동안 아무 실적 없이 여기 또 열정을 가진 우리 위원님들 자긍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혀 업적을 못 남길 특위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선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까 두 간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당 위원님들한테 또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지 간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한번 드리시고 회의 중간이라도 간사님들이 좀 합의를 해 주시면……

○安鴻俊 委員 결론이 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구성하는 것은 오늘……

○위원장 박주선 그리고 소위 활동도 다음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할 수가 있고 하니까 특위 활동이 좀 원만히 전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학진 위원 문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지금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우리 남북특위에서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이든지 방문을 결정을 해서 방북 신청을 할 경우에 방북 신청허가 당연히 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국회에서 결정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혹시 지난번에는 무슨 '막후 접촉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랬는데 계속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할 용의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우리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점은 물론 면밀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만날 검토만 하면 1㎝도 못 나가지요, 그렇지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회의 때는 어떤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문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까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며칠날 북한 들어가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보도에 의하면 이달 말 정도에 간다는 그런 보도가……

○문학진 위원 이달 말이요? 목적이 뭐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도 저희 정부로서는 구체적으로 채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아, 그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미국 행정부에서 누가 같이 갑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미국 행정부에서도 같이 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카터 전 대통령하고 누구하고 가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엘더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전직 고위직에 있던 분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쪽하고 무슨 채널에 의해서 아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아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문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외교부 차관,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문학진 위원 언제 다시 열릴 것 같습니까, 전망?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저희 정부에서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문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6자회담 재개가 언제쯤, 올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관련국들하

고 열심히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드라이브를 거세요.

지금 통일부장관하고 외교부 차관 답변 태도가 참 엇비슷해요. 만날 따지고 앉아 있으면 뭐 하나 제대로 진척이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잘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대북식량지원 문제 아까 김재윤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실상을 지금 우리 정부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실상을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WFP가 발표한 것들이 있지요? 보고서 다 보셨을 테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짧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량의 대북식량지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미국 정부는 말이에요, 대북식량지원 방침을 아마 내부적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결정을……

○문학진 위원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이라는 게 식량 지원의 기준은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다면 하물며 미국 정부도 지금 이런 입장으로 식량 지원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정부가 이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리고 매일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신중한 검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전향적인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국방부장관 묻습니다.

안보교육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교총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같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문학진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문학진 위원 군 전문강사가 나서서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전문강사가 누구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주로 예비역들로 이루어진 강사진들입니다.

○문학진 위원 아, 예비역들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문학진 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국가에 대한 안보적 관점에서의 역사교육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그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문학진 위원 이게요, 자칫……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주도의 안보교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념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순수한 국가안보 논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을 하겠다, 그다음에 대북지원물품이 북한 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 부분을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를 볼 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인기 위원 과연 이게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내 줘서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용도로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보람이 없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지금까지 민간단체에서 지원되는 물품들이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소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제대로 분배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 위원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식목일인데 아침에 얼핏 방송에 보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심는 나무가, 내가 정확한 수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 3000만 주 나무를 심는다 합디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식목사업, 산림녹화,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글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80년대 산림녹화를 아주 성공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도 적응하는, 순응하는 일들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한은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인기 위원 그래서 북한의 산림녹화, 나무를 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정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산림이 상당히 황폐화가 돼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대로 산림녹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좀더 순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묻는데요. 우리가 쌀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은 그동안에 민간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인기 위원 나무를 우리가 심은 예도 있기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민간단체도 그간에 들어가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이 나무 심는 것,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매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묘목만 줘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같이 들어간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인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토론회 하는 데 나가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방개혁,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무엇이 차이인지, 두 번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예비역 장성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개혁 2020과 307개혁의 차이점은 안보환경의 변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적의 국지도발 위협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현존 전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국방개혁 2020에서 나오는 50만 군으로의 군의 축소 조정 이 문제는 2015년 이후로 시행을 합니다. 축소되는 것 이것은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국방개혁에 대해서 현역들이 불만이 많은데 예비역 분들로 하여금 불만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군 내부에서는 공감을 가지고 다 함께 추진하고 있고 단지 예비역 분들이 어떠한 자군이기주의랄지 어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한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오늘 국회에서도 이철우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독도수호결의안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독도의 영토…… 일본에서는 우리가 독도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실효성 있는 것을 하면 이것을 침범했다 이런 단계로 관료들도, 장관급에서도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인기 위원 국방부에서는 독도의 영토 수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독도방어훈련을 합니다. 우리 군사력이 시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보훈처 업무입니다마는 국방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그동안에는 영천 등 호국공원에 가는 것을 원치 않다가 최근에 이 분들이 거기에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관리도 잘되고 해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역이 없어서 원해도 지금 못 들어가고 이런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물론 보훈처 업무입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한 1분간만, 30초만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통일부 한번 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국회 남북관계특위 보고 자료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정현 위원 첫 페이지가 이게 겉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아무 그것도 없이 붙여 놓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 장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차례 하나 있고 이렇게 넉 장을 넘기고 파란 종이 간지까지 다섯 장을 넘기고 보니까 거의 신문에서 다 봤던 내용 세 페이지 들어 있고 또 뒤에 한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종이 낭비를 합니까? 이것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정현 위원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게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너무 품격이 있어 가지고 제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위원장 박주선 이정현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좋은 것은 아니고 우연하게 봤습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 이 자리에 오신 자리에서 외통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됐고 확인되고 하는 그런 내용 말고 진심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진전되는가 하는 그러한 답변과 보고가 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공부도 할 겸 하고 왔는데 계속 저는 지금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못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북한의 실체는 우리에게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

○이정현 위원 한두 가지로만 얘기를 하자면 북한은 우리한테 어떤 대상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적이기도 한 그런……

○이정현 위원 저는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그것 엄연한 실체입니다, 노동당 규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남침을 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꼭 안보의 대상으로서만의 북한이 아니라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발전을 해야 될 민족으로서의 북한, 무시할 수 없지요. 어느 쪽이 더 위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다 같이……

○이정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북한이 감히 남침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흔한 얘기로 북한이 식칼을 갖고 달려들면 식칼보다 훨씬 더 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어서 감히 식칼로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들 정도의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집중하고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고 우리 방식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통일이 돼서 동화되는

기간을 좁혀 가면서 민족으로서 공동 발전해야 될 북한으로서의 부분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지금까지 보면 꼭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선 안보는 우리 새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좀 하고요.

똑같은 비중으로 민족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얘기들을 다룰 때에 어느 정권이나 어느 장관의 상식과 또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져 왔느냐 하는 그런 철학으로 말고 정권에 관계없이, 장관이 바뀐 것에 관계없이 긴 틀로, 긴 프로그램으로 이런 대북정책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까?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쌀을 주느냐 마느냐, 쌀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토론이 이루어질 정도로밖에 안 됩니까? 정부 정책들이 정말 저는 이 정도로밖에, 국회의원도 설득을 못할 정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북한에 지원하는 부부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 유용되고 다른 데로…… 전략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기저귀를 군인들이 갖다 씁니까? 우유를, 빵을 전부 군인들이 다 갖다 쓰게 됩니까? 그리고 폐결핵 환자들한테 준 이것도 그냥 가서 배고파서 군인들한테 그것도 먹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적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분명하게 거의 같은 비중으로 민족으로서 북한을 본다고 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을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길게 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프로그램이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야지 하다가 중단되고 바뀌고 뭐하고 아무 효과도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 효과 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보는 기준하고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주류, 화장품, 향수, 가죽제품, 진주, 보석, TV·카메라 이런 것을 포함한 전자제품이나 손목시계, 피아노 이런 것들도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북한이 우리 남한 제품 수입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치품들은 지금 일단 유엔에 의해서 제재가 돼서 못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전에.

○이정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보면 바로 남한에서 이런 사치품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치품이 북한에서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북한 지도자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하들한테 이걸 선심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는데 이것은 쌀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정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정현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북한의 쌀 얘기를 하는데 외교부차관님, 북한이 지금 구걸외교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주 외교적으로 표현하셔서 차관님은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구걸외교를 하고 있습니

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에 가서 공식적으로 쌀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고 또 지난해 말에 세계 약 40개국에 대해서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얼마나 북한에 쌀이 부족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하여간 예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년 수준이라면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전체적으로 한 100여 만t이 부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통일부장관께서는 지난 3월에도 '매년 100만t씩 부족한 게 지금 3년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것은 WFP가…… 물론 3월에 얘기한 것하고 또 얼마 전에 얘기한 것하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좀 다르지요.

○박선영 위원 또 작년 11월에 얘기한 것이 많게는 20만t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최저로 잡으면 43만t이고 최고로 잡으면 108만t까지 북한이 이렇게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량이 부족한 것을 외교적으로도 또 적십자를 통해서도, 아태위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니면서 구걸외교를 하다 보니까 쌀을 지원해 주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식량을 정치적으로 또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쌀 지원을 안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외교가에서도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한 예로, 국방부장관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령도 경비를 위해서 러시아의 무레나(Murena) 수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건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이미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러시아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 그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영 위원 북한은 그 무레나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북한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북한은……

좋습니다. 언론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러시아제 무레나를 서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 와중에 지금 러시아는 꽃놀이 패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구입 의도가 없는 게 확실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현재……

○박선영 위원 OK.

그러면 러시아의 무레나를 북한은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 보도는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도에서 봤지 사실 여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것은 모르시고, 어쨌든 보도는 그렇습니다.

무레나 1대 값이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무레나 1대 값이 5000만 불입니다. 무레나 1대 값이 5000만 불인데요, 지금 쌀 1t의 국제가격이 얼마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약 430불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조금 올랐습니다. 리비아 사건 나고 나서 472불, 1t에 472달러 정도 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북한이 지금 무레나를 1대에 5000만 불씩 하는 무레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네들 입으로 쌀이 적게는 43만t, 많게는 108만t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3만t이 부족하면 가격이 약 2억 200만 불이 되고요, 108만t이 부족하면 약 5억 900만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레나를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따지면 무레나를 4~11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쌀이 없어서 제 나라 주민들,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무레나를 구입하려고 러시아 바닥을 지금 훑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을 좀더……

외교부차관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EU 국가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식량지원 해 주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언론

보도에 있었는데 그런 공문은 아니고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라는 의견표명은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관계국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북한이 쌀이 비축미도 있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를 주고 이렇게 무슨 돈이 있어서 무레나를 2, 3대씩 많게는 지금 4, 5대를 구입하려고 한다는데 제 나라 국민도 못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레나를 4, 5척씩 구입할 수 있느냐? 무레나 1대만 구입을 안 해도 전 국민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쌀, 북한에 주는 쌀을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면 통일부장관님, 분명히 우리가 투명성이 보장되면 쌀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쌀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학용 위원 신학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철우 위원님 순서인가요?

○이철우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주선 이정현 위원에 가려 가지고 제가 못 뵈었습니다.

○이철우 위원 지명 받은 사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신학용 위원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번째 열지만 지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현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로만 '인도적 지원, 지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지요. 인도적 지원은 정치 판단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정치 판단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유아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것 다 판단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신학용 위원 대북 지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뭐……

○신학용 위원 제가 여기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정말 중요한 남북관계를 위한 대통령님부터 장관의 또 기타 각 부처의 말씀들이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언론도 헷갈려요. 과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유의미한 발언으로 다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뜻인지 지금 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부에 오늘 보니까 한일 양측은……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핵무기 해결 아닙니까?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용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일 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양자접촉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등' 또 '등'자를 붙여 놨어요. 이 '등'에 그냥 오만 것 다 넣어버렸어요. 남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더라도 다른 '등'자 때문에…… 또 '등'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등'이 뭡니까, 여기 '등'이?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

○신학용 위원 외교부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통일부랑 국방부랑 의견조율이 된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두 개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면 틀려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저께도 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대화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야지요. 남북대화를 비롯

해 가지고……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를 다 해요.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위원님, 남북대화를 하려면 북한 측이 그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와 북핵 제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제 일차적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조건에 남북대화가 들어와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등'자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제조건이 과연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것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북한 측에서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걸 쓰셔야지요. 그러니까 '등'자에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어느 게 옳은지도 모를 정도로 정부는 지금 책임회피 내지는 추궁에 대해서 이리저리 피해가려고 하고, 전제조건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비핵·개방……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비핵·개방·3000이,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비핵·개방·3000이 안 되면 또 대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첩첩산중 다 엮어놓고요, 진전된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면 뭐라도 하나 빼든지 해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은 없고 만날 안 된다는 건데 그 뒤에는 한 겹, 두 겹, 세 겹, 막을 다 쳐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이것 말 맞습니까? 국제사회 정부…… 유엔식량기구에서는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딴죽 걸고 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제기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기구는 자기 자체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주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WFP가 그 실사를 위해서 지난번에 들어갔다 나와서 실사 결과를 지금 여러 나라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말이 설명이지 우리가 허가하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적 재원도? 우리는 그걸 인도적 지원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미국 등 또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그것은 WFP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평가가 적절성이 있느냐,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또 각 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선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학용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주선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철우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이철우 위원 경상북도 김천 출신입니다.

마이크 안 들어오나요?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장관 3명이 처형됐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장관님이 요새 최근에 신문들,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방부와 국정원, 또 외교부가 서로 마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비쳐지고, 먼저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정원의 무슨 마찰 이런 걸로 자꾸 비쳐지고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하단 말입니다.

다 한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자기들 기관을 좀더 잘한다, 내가 좀더 알아도 먼저 알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관 3명 처형, 평양은 숙청중' 이렇게 조선일보의 1면 톱기사로 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먼저 보고를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느냐, 또 이것이 맞기는 맞나, 또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국정원이라든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기는 서로 자기들끼리, 특히 다는 소통은 못 하겠지만 핵심

간부들은 소통하는, 물론 회의는 합니다. 회의 해 가지고는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자기 것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가면 되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국가에 정보가 필요한 게 뭐뭐인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고 그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것을 전혀…… 저도 그런 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없습니다. 회의한다고 하면 삐쭉 서류 들고 가서 내 것 발표하고 그쪽에서 오면 내가 좀더 잘한 것처럼 우월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어차피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좀 해 줘야 될 거고, 남북 말고도 다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어떻게 조금 그 문제가 어떤 시각으로 비쳐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장관님들끼리나 또는 고위 실무자 레벨에서는 아주 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글쎄, 그 협의가 형식적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인간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1박 2일 가서 정말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팍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단체로 한번 해 보시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1박 2일로 꼭 한번 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진짜 그것은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철우 위원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보면 국민들이 아주 믿음직해서 좋아한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킹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해킹부대를 한 5000명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추산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철우 위원 우리도 그래서 대비책을 만들었잖아요, 부대를 만들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해킹'이라고 하는 전자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말씀드린 GPS, 디도스에 대해서도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도 민간이 충분히 대비를 하면 좋겠지만, 민간도 하지만 군에서 그런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독도 문제에서 늘 문제가 되는데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시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외교부 차관님, 일본은 지금 센카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위대를 파견했습니까, 먼저 파견한다고 했는데?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일단 그 섬 자체는 무인도입니다.

○이철우 위원 지키러 나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우리 국방부처럼 이렇게 돌고 지키고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밖에서는 지키지만 실제로 가서 지키고 그런 것은 없고?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우리 경비대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 거기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군을 파견해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그것은 통일부에서 알고 국방부에서 알 것은 아니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분쟁이 되어 있는 지역에 군을

파견했는지, 우리는 마치 군이 나가면 전쟁이 날 듯이 정말 분쟁지역으로 될 것처럼 걱정이 되어서 지금 경찰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독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이철우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분쟁이 되는 지역, 우리와 같은 여건이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우리 직원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 군이 가 있다고 합니다.

○이철우 위원 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이철우 위원 그래서 러시아는 대통령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발전특위인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마치 식량을 줘야 발전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못된 놈이 있는데 잘 모으라고 돈 계속 대준다고 그놈이 더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우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고 또 달랠 때는 달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치 남북관계 발전 하면 배고픈 놈 밥이나 주면 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게 우리 대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철 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남북대화 또는 회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고 외교부 문서에 남북대화 등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의 틀에서 회담 재개가 가능하겠다 이런 취지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가 남북관계발전특위인데 남북관계 발전은 반드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서해교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많은 장병들이 다치고 죽고 해도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퍼주고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올바른 발전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로 만나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남북대화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얘기는 외교부 문서에 써있습니다만 연평도 사건이나 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저는 이게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그 문제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 올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철 위원 과거 북한이 옛날부터 무슨 미군 장병을 그냥 도끼로 찍어 죽인 만행 사건부터 있었어도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또 북한이 그냥 대화하자고 요구하면 질질 끌려가서 또 퍼주기 시작하고 이게 과거 죽 이어져 온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지속적이고 또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북관계 주요일지'라는 게 있거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사철 위원 그런데 천안함 폭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연평도 건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착오로 빠진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철 위원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게 마치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의지가 좀 미미한 것처럼 비쳐질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철 위원 국방부장관님, 이 보고서를 보니

까 '심리전 본거지 조준격파사격 운운, 대북심리전 중단 위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북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방송 등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무슨 대북심리전 방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5·24 조치의 일환으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 위원 방송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방송도 합니다.

○이사철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5·24 얘기를 하시니까 말입니다, 북한이 대북심리전 방송을 하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했고, 또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고 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줘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미군하고 훈련한 게 있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그때도 북한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랬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감히 단행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북한은 아무 일도 못 벌이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자세를 견지할 때 오히려 북은 더 이상 우리를 도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과 남한의 대화에도 더 도움이 되고 발전에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할 때 북이 또 이제 가만 안 있겠다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하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통선 밖에서 합니다.

○이사철 위원 밖에서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걸 무슨 하냐마냐 이렇게 저지할 권한이나 이런 게 없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하지 않습니다.

○이사철 위원 지금 그런데 철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저지를 했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그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단체도 현재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 위원 하고 있는데 또 북한이 그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만 했지 제대로 이 사람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직까지 도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래서 장관님이 확실한 자세를 정말 대북관계에도 보이시니까 오히려 북한은 협박성 말만 했지 어떤 행동도 못 이루고 이제 우리에게 대화를, 아까 식량을 구걸한다는 표현을 박선영 위원님께서 쓰셨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자꾸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화하려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확고한 자세를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세 분, 세 부처에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사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국방부장관님, 3차 핵 실험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정부의 국방부입니까,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관련된? 통일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응으로 따지게 되면 국방부가 될 것이고.

○박선숙 위원 지금 3차 핵 실험에 대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내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주무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기 셋 중에는 국방부입

니다.

○박선숙 위원 국방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3차 핵 실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풍계리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1·2차 다 풍계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 최근에 최소한 3개 이상 지하갱도를 뚫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정보당국으로부터 전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제3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풍계리에서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풍계리?

○박선숙 위원 예, 풍계리 근처에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정보를 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그래서 역시 풍계리입니다. 백두산 인근 110㎞ 지점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중국의 징위 원전에 관한 정보는 어느 부처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입니까? 중국의 징위 원전이요, 백두산 100㎞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위 원전 건설계획에 관해서?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그것이 원전 건설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것 외교부가 주무입니까? 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주무가 외교부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일단 저희들이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백두산 인근의 100㎞ 지점에서 원전을 중국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 지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지하갱도가 지금 파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보당국이 이미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을 때 백두산의 열이 올라갔던 그 정보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정보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외교부에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러시아의 관측위성이 2006년에 북한 핵실험이 있었을 때 백두산의 열이 올라갔다,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관한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러시아 관측위성의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어느 부처가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식적으로 받은 것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 정보는 요청해서 받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 영향 우리가 유의할 만한 차이인지 받으셔야 되지요. 러시아 측에 요청해 보시지요.

이게 백두산 인근의 화산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만큼 백두산의 인근에서 벌어지는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지반에 영향을 미쳐서—마그마방이라고 합니다—백두산의 화산활동을 변화시키고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그 분석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이게 지금 남북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 러시아, 한반도, 일본까지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 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됐을 때는 그게 일본에서 중국까지 화산재가 다 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2개를 따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 백두산 화산 활동의 문제와 바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의 문제와 원자로 건설의 문제가 합쳐지면 이것은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부처 가운데는 소방방재청, 기상청, 과학기술부까지를 포함하여 정부 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 남북한을 포함하는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협조와 정보의 공유, 공동의 대응방안 모색 이런 것들을 제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위원 국방부와 통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했고 그 저의와 의도에 대해서, 북한이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 북한이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국 간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한 것의 저

의와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안에서 당국 간 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박선숙 위원 예,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당국 간 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가들이 일단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전문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숙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렇게 죽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논점이 있고 이것이 핵실험 문제와 원자로 문제와 백두산 문제를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자라고 역제안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와 사실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남북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고 조만간에 다시 이제 2차 회의가 열리도록 저희가 제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가면, 지금 이제 박선숙 위원님께서 아마 저는 적절한 어떤 의미에서 우려를 하시고 계시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틀에서 잘 판단해서 그 문제에 잘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세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실시하겠는데 보충질의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5분? 5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 5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물을게요. 동서독의 통일 전에 서독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전단을 뿌린 예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꼭 동서독이 아니라도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전시에는 항상 심리전이 있어 왔습니다.

○이인기 위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인기 위원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보면 전단 살포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어느 A, B, C군이 반대하니까 D군이 새벽에 가서 뿌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버리는데, 육체적인 충돌이 일어나버리고 해버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장관이 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놓고 주민들 간에 어떤 다투는 문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할 때 전단 살포는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심리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외통부차관님, 외통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답으로 줬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시간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재외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이인기 위원 그래서 다른 일본도 그렇고 영국, 미국도 그렇고 다 재외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남북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일어나는 대통령선거 이런 일에 재외국민투표 과정에서 북한이 여기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전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외통부에 세우겠습니까? 내가 숙제로 던져 놓을게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끝나셨습니까?

○이인기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영 위원 이인기 위원님이 남겨 놓으신 시간도 제가 쓸 수 있습니까?

○이인기 위원 무상양도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아까 무레나(Murena) 도입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확실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실 제가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좀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주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면 알아보시지도 않으시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좀……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영 위원 그러면 북한은 무레나는 아니지만 공기부양정을 한 130척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해 5도 방위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위협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계획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 불곰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무레나가 3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품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대응책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국방부장관 김관진 공기부양정은 공기부양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부양정의 목적은 기습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선영 위원 그럼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상륙작전은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상륙작전 할 때의 공기부양정이 갖는 고유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노출되고 재질도 알루미늄 재질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박선영 위원 그래서 뭐 이제 장관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서 그냥 딱 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난번 연평도 사건에서도 보듯이 전투기가 떴는데 공대지도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해 가지고 뜨고 그리고 떴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런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다는 사실을 좀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시작을 이제 회의 두 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 번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하기 시작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오늘 이 형식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를 좀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북한에다가 전문 보낼 거라면서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내일이요?

○박선영 위원 다음 주에 화산 공동회의 하자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내일은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모레 보내실 겁니까? 7, 8일?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여기에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두산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래 전부터 그것을 빨리 시작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관심이 매우 지대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백두산이라는 것이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였고 김정일의 생가가 있는 부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의 지금 지린성 징위에 원자로 4개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백두산에서 100㎞ 정도 떨어진 곳에 원자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매우 불안한 사실인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원자로가 없어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야기할 터인데 100㎞ 이내의 지린성의 징위 지역에 원자로 4개가 들어선다. 그다음에 또 남쪽으로, 남동쪽으로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늘 하는 그 지역이 밀집돼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하고 겹쳐져서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단순히 남북관계가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차관님,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남북간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중국도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도 모두 참여하게 해서 백두산 6자회담으로 끌고 가십시오. 그것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2년째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이 저런 대재앙을 맞고 원전사고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지금 연일 보도가 돼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국내 원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왜 그런 회의 주도를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 통일부가 백두산 공동연구의 주도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라도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합의를 하셔서 백두산 6자회담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실 생각 없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차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처음 들으시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처음 들으시겠지만 2년 내내 제가 주장을 하던 겁니다. 빨리 좀 하시고요.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 무상 할애를 받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대남 공세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트위터라는 게 리트윗(retweet)하면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지금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글만이 아니라 우리 대남, 남쪽 정부를 비난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정통성은 합리화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권은 매우 모질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아마 그것은 어떤 정도에 따라서 혹시 사법당국이 판단할 것은 사법당국이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국방부에서도 지금 E전, 전자전 대비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영 위원 같이 합심하셔서 트위터에서……

국방부장관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이 트위터에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대북 심리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민족끼리 차단됐다 그러지만 다른 계정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차단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일부장관님, 최근에 양강도에서 탈북자 가족들을 한밤중에 집단 이주시키고 있다라는 보도,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양강도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양강도에서 탈북자가 있는 가족들은 집단으로 다른 데로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이주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제가 그 사실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 있으면 그 가족들이 가서 보통 세 가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핸드폰 등을 통해서 정보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전국적

으로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또는 공개처형을 하거나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계속 북한에다가 요주의,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외교를 외교부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위원장 박주선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통일부장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백두산 화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차 핵실험 문제도 논의하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의 정보제공 협의를 또 받아야 되고, 중국 측의 정보도 받아야 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외교부차관님, 후쿠시마원전 관련된 일본 측의, 지금 일본 측에서 특별한 정보가 잘 안 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와 협의해서 북측과 공유를 하려는 그런 시도나 검토는 해 본 적 없으세요?

통일부장관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후쿠시마원전이 우리 해안에 미치는 영향은 북측과 남측이 공동이기 때문에—해양이나 공기에 미치는 영향은—그에 관해서 북측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 그런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지금 일본 쪽의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보 공유로부터 대책에 관한 문제까지도 사실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후쿠시마원전 관련해서 바닷물, 1만t 넘게 방사능 오염된 물이 나오고 있는 것, 환경부나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오염된 바닷물 내보내는 것, 방류하는 것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지금 일단 저희들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박선숙 위원 런던협약 문제만 지금…… 혹은 다른 국제법적인 협약에 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떤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지원 세력에 대한 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잠수정 공격이 있을 경우에 잠수정의 지원 세력은 후방에 있지 않습니까? 후방기지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그러면 그 후방기지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원 세력이라고 한 것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그러한 포격 도발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박선숙 위원 바로 인접부대, 아까는 인근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인근, 인접 같은 의미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원점과…… 지원 세력 이런 용어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고 이것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혹은 교전규칙의 융통성을 거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협의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라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무래도 용어는 조금 엄밀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는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전 차원에서의 전단 살포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굳이 민간이 민간과 충돌해 가면서 어떠한 방어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방치해야 되겠는

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부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하게 방어력이 있는 차원에서 저쪽에서 설령 어떤 종류의 타격을 가해 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리전이라 함은? 확성기라 하면 확성기를 타격하면 그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응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에서 심리전을 한다 어쩐다는 것은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항상……

○박선숙 위원 저도 깊게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는 게 심리전이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 인력이 전단 살포하는 것을 군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그럴 경우에 혹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 측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릴게요.

전방 근무하셨어요? 접경지역 근무하셨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접경지역 주민들하고 접촉 많이 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접경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전단 뿌리지 말라고 저항하는지 아시겠네요. 모르세요? 접경지역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위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왜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준비되어 있고 방어력과 타격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군의 심리전과, 민간인들이 민간인 지역에 들어가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엄격하게 다르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방치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정부는 적어도 설득하고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못 하게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요. 잘 한번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검토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 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저희들이 그 발표를 듣고 바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그다음에 공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하고 혹시 대응책을 같이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같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혹시 설명,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업 자산들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다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방금 법률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맨 먼저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일본 정부에다가 정보를 달라고 하고 또 현장조사도 같이하는 것 등의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예, 손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도 협력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다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국방부장관님, 남북관계발전특위

에서 국방부장관님을 모신 이유는 심리전이라든가 또 이것을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억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관님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뭔가 욱하는 것도 자제해 주고 이런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장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국회에서 조금 자제하시고 남북이 원활하게 서로 평화와 화해·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장관님이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님이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꼿꼿하고 강경하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장관님이 평화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 주는 것이 저는 우리 남북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국방정책을 펼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국방부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김재윤 위원 국방부의 원칙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런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 간에 원활한 그리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 결국 저는 통일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도 북도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자원 의존도가 예를 들면 자꾸 중국 중심이 되고 또한 경제력이 전부 중국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얻어가고 또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일부가 각 부처에다가도 경제협력, 저는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외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자원외교하고 아프리카 자원외교하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정책들을 저는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종단 대표님들께서 방북 요청할 때는 흔쾌히 내 주시고 그리고 또 학술 교류, 문화·예술 교류, 체육 교류 이런 여러 가지 민간교류들을 활성화할 때 우리의 갭, 우리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서로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전에 오히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분열을, 분단을 평화로 바꾸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저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통일의 기틀을 놓는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일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두 차례 불행한 일이 있었고, 북한이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잘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박주선 신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지호 위원 오늘 2시부터 지금 2시간 20분이 경과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민들의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시간 20분 동안 세 분의 국무위원들, 바쁘신 분들을 모셔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의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만들었을 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불가피하게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써 가면서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 보여 준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유출 사건 큽니다만 그게 남북관계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시적인 특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 양당 간사 간에,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간사님들이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 특위에서 다룰 문제를 특정화하고 구체화하지 않으면 특위의 향후 운영이 계속 공중에 붕 떠서 결국 끝나고 나면 '뭐 하려고 특위 했느냐, 예산 써 가면서?'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을 하고 보다 의미 있고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립니다.

○박선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잠깐만요.

신지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외교 문제, 통일 문제, 통상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항상 365일 동안 열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적 관심과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 또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국민적인 여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가지고 특별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정부에 촉구도 하고 정부에 이행을 시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비단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 상임위원회 본회의는 여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질의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낙진 문제와 같은 것은 국민적인 최우선에 있는 관심사고 또 현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에게 생방송되는 이 상황에서 여쭤 본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오늘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일본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우리 남한에서 방사성 낙진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북한에 이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하는 것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원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지호 위원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뭔가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의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귀한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신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행정부의 각료들이 세 분이나 나와 계시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한 부분은 소상히 답변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 아울러서 우리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답변,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형식적인 국회의 출석 이런 개념으로 대하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목표를 위해 접근된 자세를 좀 가져 달라 하는 말씀으로 저의 위원장 말씀을, 신지호 위원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제가 오늘 두 시간 반에 이르는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동등한 입법기관으로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평가할 권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질의답변이 국회의 어떤 상임위에서도 국방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을 함께 모셔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런 점에서 그 세 분에게 다양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고 들으면서 저는 배운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의답변이라는 게 쌀 지원 문제에서부터 전단 문제, 후쿠시마 원전이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 백두산 문제,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남북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선 또 유사한 말씀 아니겠어요?

예,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신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특위의 이름이 남북관계발전특위입니다. 북한 흠집내기 특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을 더욱더 공격해서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특위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 국회가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그런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보다 더 평화롭고 또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가치와 또 방향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 남북관계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관계특위가 정말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이름답게 이슈도 정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세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방부가 너무 세게 가지 말고 보다 더 협력적으로 화해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청도 드린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호 위원 제가 1분만……

○위원장 박주선 예, 우리 위원님들 충정은 알겠습니다.

자, 신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무슨 뜻인지 우리 위원들 다 아시고……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쭙겠는데요, 보도에 보면 7대 종단 대표들과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7대 종단 대표들이 통일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7대 종단의 대표께서 저를 좀……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간담회를 요청했던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무슨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유익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종단의 대표자들이 통일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현재의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현황을 청취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발전과 관련된 종단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종단 대표들이 통일부장관께 북한 방문을 요청을 하고 또 본인들 북한 방문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종단 대표들께서 남북관계에 조금 기여하고 싶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오갔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통일부장관도 북한을 한번 방문하시고 본인들도 북한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의 방문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종단 대표자들이 요청하신 방북 건에 대해서는 통일부 방침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지금 어떤 방침을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여간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고 또 우리 종단 대표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심사숙고를 올리겠다고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 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알

려 주시고, 국방부장관께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대북전단 살포가 군에서 한 건지 민간이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군에서도 전단 살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이 부분을 소상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국방부 산하, 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전단 살포가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리전이 전투행위의 한 방법인가요? 일종인가요? 총격전이 있고 육탄전이 있고 심리전 있고 등등 하듯이 전투행위의 일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심리전은 직접적인 전투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가 총력적 차원에서 심리전도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전투행위의 수단이거나 일종이라고 보는 겁니까, 군에서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작전상에 들어 있는 개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작전상 하는 기능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예?

○국방부장관 김관진 작전 기능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다면 만일에 군에서 심리전을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전협정 위반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선 왜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전협정에는 심리전에 대한 조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전투행위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투행위의 일종이 아니고 대치되어 있거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런 작전 기능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건 전투 개념 속에는 안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 그것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들어가면……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런 타격 수단은 아니지요. 우리가 교전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타격 수단에 의해서 교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리전은 교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방부장관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상히 말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제가 토론하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마치고, 마지막으로 통일부장관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걸 가지고 그동안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이 살포를 중지해 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지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다음에 요즘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자초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항의 내지는 반발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통일부의 기존 입장도 대북전단의 살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통일부가 이제, 물론 2004년에 남북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초까지 저희 통일부는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으나,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토록 권고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초 이후에 북한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직접 비방·비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들을 또 위반을 하고 더구나 작년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민간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할 그런 상황과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

인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주선 오늘 두 분 장관님과 외교부장관을 대신해서 출석해 주신 우리 박석환 외교부 1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정옥임, 김재윤, 이 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역시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의지를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하여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박석환 외교통상부제1차관,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4월 28일에 개의를 해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앞으로의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 활동계획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동철	김세연	김재윤	김효재
문학진	박선숙	박선영	박주선
송영선	신지호	신학용	안홍준
이사철	이인기	이정현	이철우
정옥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전문위원	권기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방부장관	김관진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석환